

##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저등도 초기 화농성 관절염 에서 관절강내 반코마이신 주입치료 - 증례보고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김영모 · 김성재\* · 이충희 · 김태훈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합병증 가운데 화농성 관절염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나, 발병 시 그 결과가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치료로 조기 관절경하 세척술,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수술직후 발생하는 low grade early septic arthritis의 경우 관절의 pain, swelling, edema, redness, local heating 등과 같은 임상 증상들이 미미하거나 매우 다양하게 발현되고, 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수술 직후의 비특이적인 현상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술직후 환자들에서 시행한 CBC, ESR, CRP 및 수술직후 hemarthrosis가 있는 관절천자액의 cell & differential count는 그 의미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저자들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low grade early septic arthritis에서 비수술적으로 2차례의 관절강 내 반코마이신 주입을 통해 치료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해 논문으로 보고된 바가 없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색인 단어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low grade, early septic arthritis, 화농성 관절염, 반코마이신